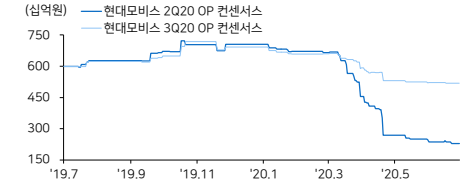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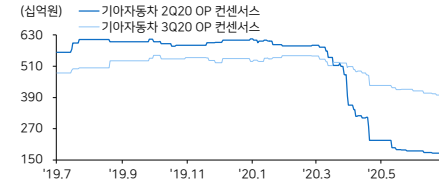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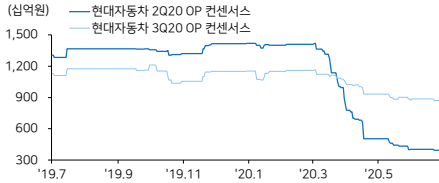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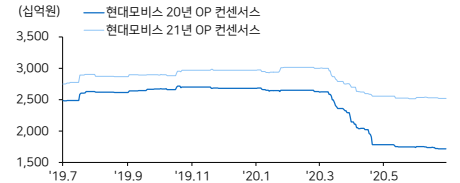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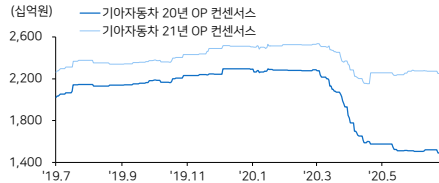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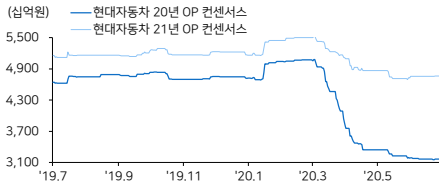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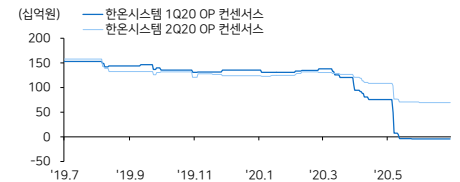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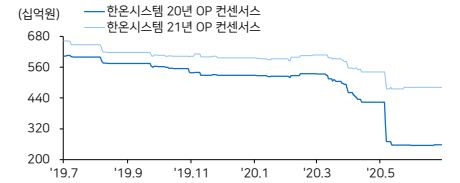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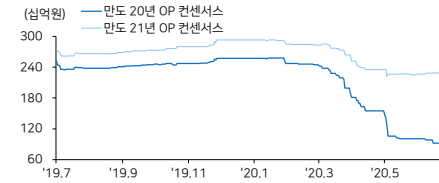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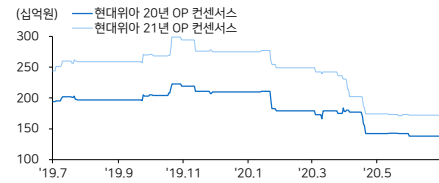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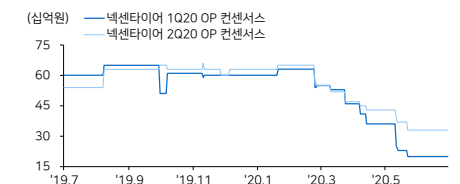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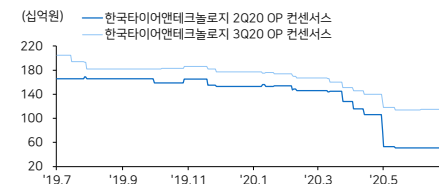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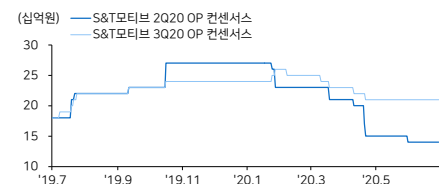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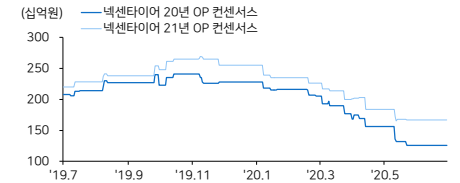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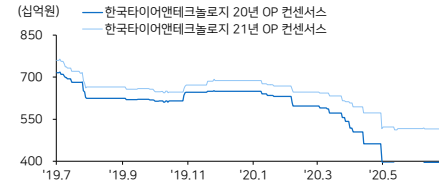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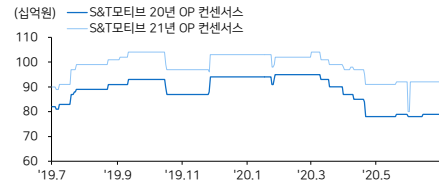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SK이노에 75분간 질문 쏟아낸 정의선...뮌헨 공금했다 (중앙일보)

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지난달 구광모 (HLG 대표)에 이어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뒤 SK이노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라이프먼트 등 인도 현지매체들이 보도. <https://bit.ly/3faUcPz>

현대차, 인도 디지털플랫폼 '클릭 투 바이' 개설 4개월만에 성황 (글로벌비즈)

현대차의 인도네 디지털플랫폼 '클릭 투 바이(Click To Buy)'가 선보인지 4개월 만에 150만명이 방문했으며 차량문의 2만건에 실제예약은 19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이브먼트 등 인도 현지매체들이 보도. <https://bit.ly/3f7jyXK>

현대차 계열사 '수소경제로 헤쳐모여' (쿠기뉴스)

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수소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섬. 코로나19 확산과 미·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미래역거기 확보에 나선 것. 또한 이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비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. <https://bit.ly/203DDsT>

전기차 충전 플러그 못끼면 하연 충전 끝...한전,결제 없이 간편 충전 기술 개발 (스마트시티투데이)

한국전력이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연결한 하연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'플러그 앤 차지 충전기술'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 전기차 제조사들은 2021년부터 플러그 앤 차지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. <https://bit.ly/2DcpNIM>

SK도 LG도 오매불망, 현대차 E-GMP가 뒤흔들 (머니투데이)

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전기차 플랫폼 E-GMP(Electric-Global Modular Platform)를 도입. 플랫폼은 쉽게 말해 전용 디자인, 불필요한 구성과 부품이 빠져 차체가 가벼워진다. 에너지 효율은 높아짐. <https://bit.ly/3ebQX9c>

기아차 구매 2030 고객... 차값의 최대 57% 유예 (동아일보)

기아차가 2030세대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 '스타트 플랜'을 출시. 7월 기아차의 일부 차종을 사는 '80~'00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함. 차량 가격을 일부 유예해주고 특별 저금리와 부가서비스 연계 혜택 등을 제공. <https://bit.ly/2DKM4Ox>

만도, 전동화차량용 충전부품 사업 재개...단언에 PHEV·BEV·FCEV 경쟁력 확보 (전자신문)

만도가 전동화 차량용 충전기(OBC·On Board Charger)부품 사업을 재개. 회사는 또 OBC 기술을 활용에 개발한 '퓨얼셀 DC-DC 컨버터(FDC)'도 양산, 수소전기차 부품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전략. <https://bit.ly/3fDMV1u>

테슬라 '이것' 때문에...900만달러 써도 1년 기다려 산다 (한국경제)

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079대의 차량을 판매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422대에 비해 1677%에 달하는 급성장을 이룬 것. 테슬라가 국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비결은 자율주행기술에 있음. <https://bit.ly/2BFlyPz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